

산유국

이란의 연구 ②

- 한국외국어대학 중동문제연구소 -

이 자료는 최근 외국어대 중동문제연구소가 펴낸 「국가연구 : 이란」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제Ⅱ장 이란의 정치

1. 정치현황

팔레비 왕조의 성립

1921년 2월 레자 칸(Reza Khan)은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하였고, 1925년 10월 의회가 아마드 샤(Ahmad Shah)의 폐위를 의결함으로써 카자르(Qazar) 왕조는(1796~1925) 끝났다. 곧이어 12월 레자 칸은 레자 샤 팔레비(Reza Shah Pahlavi)라는 이름으로 팔레비 왕조를 수립했다.

이후 레자 샤는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여 강력한 전제정치를 단행하였고, 특히 상이한 기능을 가진 여러 군사조직을 개편·통합하여 군부세력을 그의 전제정치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레자 샤는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이로 인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개혁작업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그의 재위기간에 제국주의를 거부한 새로운 영도력을 정착시켜 대외 예속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도의 개편, 행정권의 중앙집권화, 군부의 개편과 통합, 새 경찰제도의 창설, 각종 현대 교육기관의 설립, 공장 건설, 철도 부설, 사회 관습의 개조, 종교법 개정, 치외법권(Capitulatioous) 철폐 등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들을 남겼다.

한편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종래 불화하고 반목하던 이웃 여러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선진우호정책을 펼친 결과, 1937년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터키와 함께 사다바드 협정(Sa'dabad Pact)을 체결, 이른바 「동부협상(Eastern Entente)」이라는 최초의 中東지역 집단 방위 동맹체 창설에 나섰으며,(그러나 곧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무산되었음) 英國과 소련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獨逸과의 관계를 밀착시켜 이란내에서 외세의 균형을 구축하고자 기도하는 등 대외적 지위향상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英國과 소련이

동맹국이 됨으로써 대독일 관계로 언었던 평시 외교의 잇점은 전시 외교의 약점으로 전환되었다. 이란은 대전 중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연합군측은 이를 무시한채 이란 고원을 소련에 대한 원조보급로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8월 영국군과 소련군이 이란에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길란(Gilan), 마잔데란(Mazanderan), 고르간(Gorgan), 코라산(Khorasan)의 5개주를, 영국군은 테헤란(Teheran)을 제외한 남부지역을 각각 점령하였다. 연합군의 이란 점령은, 1942년 1월초 이란, 英國, 소련 사이에 체결된 3국동맹 조약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같은 해 여름에는 비전투 요원 미군 3만명이 영국군의 보호하에 이란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는 美國의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에 의해 소련에 대한 전쟁물자 보급이 시작되자 이의 신속처리를 위한 것이다.

연합군이 이란을 점령하자, 당시 친독일정책을 전개하여 오던 레자 샤는 연합군의 압력으로 1941년 9월 왕위를 왕자 무하마드 레자(Muhammad Reza)에게 물려주고 남아프리카로 망명하였다(레자 샤는 1944년 망명지에서 사망함). 이를 계기로 친독일과 내각이 사임하고 친독일계 인사들은 지하로 도피하였으며, 대신 친연합국 내각이 조각되었다. 1943년 獨逸이 이란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연합군 교란작전에 친독일과 지하운동조직을 동원하려 하자, 이란 정부는 연합군의 압력을 받아 9월 獨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실전은 없었다.

대전중 연합군의 점령과 압력하에 무력해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치적 독립권의 상실에 대한 분노가 얽혀 국민들의 왕정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자, 여러 지하운동조직이 생겨나 국내 정세가 크게 동요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1942년 일단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점령군의 반정부 좌익계에 대한 선동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얻어 투데(Tudeh 대중)당을 창당하였다. 투데당은 아르메니아(Armenia)인, 쿠르드(Kurd)인 등 소수민족을 선동 지원하여 분리운동을 벌이는 한편, 소련의 지원을 얻어 친소련계 신문을 발간하는 등 친소련 노선을 추구하였다. 1944년 9월 소련은 북부 이란의 석유채광권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모하메드 사아드(Mohammed Saad)수상은 투데당을 위시한 반왕정 친소련파 세력의 압력으로 수상직을 사임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분리운동

1945년 11월 소련군 점령아래에 있던 아제르바이잔에서 소련 점령군의 지원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 곧 폭동화하였다. 이를 진압코자 이란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정부군은 소련점령군의 진로방해를 받아 진입치 못해 진압에 실패하였다. 이 폭동을 이끄는 투데당은 12월 아제르바이잔에 자치 쿠르트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6년 1월 이란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 제소하였으나, 안정보장이사회는 이 문제를 이란이 소련과 양 당사국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1946년 3월 이란 주둔 英國, 미국군은 1942년 3국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이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소련 점령군의 철수를 촉구하였으나, 소련 점령군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주둔하였다. 이란은 소련 점령군의 철수 문제를 놓고 협상한 결과, 4월 소련 점령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북부 이란의 석유개발회사의 주식 51%를 소련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소련과 석유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소련 점령군은 5월 이란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투데당 지원은 계속되었다. 4월 투데당이 이끄는 자치 쿠르트 공화국은 다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5월에는 이란 중앙정부에 대해 내전을 포고하였다. 12월 이란 정부는 美國의 지원을 얻어 아제르바이잔 진압에 성공했다.

戰後의 不安

레자 샤는 이후 강력한 반공정책과 친미정책으로 기울었다. 1944년 8월, 의회는 1946년 4월에 체결한 이란-소련 석유협정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10월에는 이란, 美國 군사 사절단 파견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란에 파견된 미국군 사절단이 이란군의 훈련과 운영을 돕게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중 레자 샤 팔레비의 망명으로, 과거 그가 이룩해 놓았던 샤의 절대권, 전통적 복수 사회의 통합, 군의 통합 등이 와해되었고, 외국군의 점령과 그 영향력에 대해 무력하지만 했던 무하마드 샤에 대한 불만,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샤에 반대

하는 세력이 전후에 크게 등장하였다. 특히 美國의 군사 지원으로 강력해진 군대가 사의 개인적 정치 도구화 할 것과 이에 따른 사의 강력한 전제정치에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낀 세력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사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도시민계층, 사의 근대화 개혁에 반대하는 지주계층과 종교지도자 계층, 사의 군대 통합에 반대하는 부족 엘리트 계층,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는 투데당 등 여러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사와反사파 사이의 불화와 반목은 행정부의 안정을 잃게 하였고, 내각의 평균 수명은 5개월에 불과하였다. 1949년 사는 그의 헌법상의 지위 강화를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처음으로 상원을 설치하였으며, 의회해산권 및 총선실시 명령권 등을 갖게 되었다. 사는 이러한 권력강화를 기초로 1949년 의회에서 제1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과시켜 근대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反사파들은 1949년 10월 모사데크(Muhammad Mossadeq)를 영도자로 하여 국민전선(National Front)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사운동에 들어갔다. 국민전선은 이란당(Iran Party), 노동당(Hizb-i Zhamakteshan), 이란 국민당(Hizb-i Mellat-i Iran) 그리고 모슬렘 전사단(Jam'eh-i Mujahedin-i Islam)이 주축이 되었으나, 여기에는 1949년 2월 사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으로 불법화된 바 있는 투데당도 가담하였다.

石油 國有化

1950년 6월 이란 정부가 석유광구 사용료 인상문제로 英國·이란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와의 오랜 협상끝에 1933년 협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국민전선은 행정부를 영국과 내통하였다고 격렬히 공격하고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이제 석유회사 국유화 주장으로 여론을 이끌어 反사파를 반영시위 운동에 동원하였다. 사는 석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근엄하고 독립심이 강한 라즈마라(Ali Razmara)장군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1951년 3월 석유국유화에 반대한 라즈마라 수상은 암살되었다. 3월 20일 의회는 석유국유화를 가결하였다. 중도파 신임수상 후세인 알라(Hussein Ala)는 국유화의 원칙내에서 석유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6주만에 사임하고 4월 모사데크가 수상직에 올랐다. 모

사데크는 6월 아바단 정유공장을 접수하고 7월에는 석유회사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영국인 종업원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강경책을 고수하였다. 이에 석유회사는 9월 기술자를 철수하고 석유설비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이란은 역사상 최초로 석유 국유화를 성공시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란 민족의 승리를 기록하였다고 자평하였다. 이 석유 국유화의 결과 이란의 석유산업은 약 3년간이나 혼란에 빠졌고, 석유수익의 대폭적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였다. 英國 정부는 이란만에 해군력을 증강시켜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재소하는 등 이란에 압박을 가하였다. 이란은 英國을 비롯한 서방과의 불화와 더불어 美國의 원조 거부 사태로 국내경제의 위축과 전반적 정정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모사데크의 실각

1952년 제17기 의회 회기를 맞아 왕당파와 친영 보수주의자들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모사데크는 1944년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그의 예상이 빗나가자 총의석 131석을 채우지 않고 겨우 정족수 선인 79석으로 총선을 중단시켜 1952년 2월에 의회를 소집했다. 모사데크는 의회에서의 지지기반 열세(30:49)에도 불구하고 7월 의회에다 포고령에 의한 개혁법 제정권한을, 그리고 사에게는 전쟁성장관 겸직권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거부되자 모사데크는 전격 사임하였다. 사는 카밤(Ahmad Qavam al-Saltaneh)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국민전선은 테헤란에서 수습이 불가능하리 만큼 위협적인 대중시위를 동원하였다. 내전을 두려워한 카밤은 4일만에 수상직을 사임하였다. 모사데크가 다시 수상직에 오르면서 그의 요구대로 국방장관직을 겸임하였다. 8월 의회는 모사데크에게 6개월간 포고령에 의한 입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국방장관직을 겸임한 모사데크는 카밤 구속, 군대 숙청에 이어 언론탄압, 황실 토지의 국가 환수, 궁정 예산 삭감, 행정부의 왕립 자선기금 감독, 사의 외교관 접촉금지, 아스라프(Ashraf) 공주와 소라야(Soraya) 왕비의 국외 추방, 왕실을 부패, 반역, 간첩의 소굴이라고 공격한 투데당 기관지에 대한 판결의 거부 등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1953년 5월에 이르는 사이에 사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였다. 7월에 이르러 의

회에서도 반모사데크 비난이 높아지자, 모사데크는 부정에 의한 국민투표를 빙자하여 의회해산까지 감행하였다. 샤는 최후로 모사데크의 해임을 시도하나 실패하여 망명의 비운을 맞았다. 모사데크에 의해 숙청되었던 군부세력은 8월 19일 자헤디(Fazallah Zahedi)장군을 주축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켜 모사데크의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샤의 復歸

모사데크의 실각으로 권좌에 복귀한 샤는 쿠데타 주동세력인 자헤디 장군을 수상에, 박티야르(Timour Bakhtiyar) 장군을 테헤란시 군사령관에, 그리고 헤다야트(Hedayat) 장군을 참모총장에 기용하였다. 그는 계엄령과 군사재판 그리고 집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포고령 등으로 투데당과 국민전선 등 모든 야당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美國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얻어 정보기관 사바크(SAVAK)를 창설하여 극좌파 분자들을 제거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여 갔다. 군대의 숙정작업도 병행하여 공산주의자 및 반사파 장교들을 대거 퇴역시키고, 美國과의 협력으로 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군의 확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이란은 석유 국유화를 풀고 英國과 석유분쟁을 협상으로 종식시켜 석유수익을 증대하였고, 이와 더불어 美國의 긴급재정원조로 경제질서도 회복하여 갔다.

그러나 이와같은 좌익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사파의 지하운동까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 모사데크정권하에서 극심했던 재정난의 여파로 물질적 빈곤이 쉽사리 극복되지 않았다. 샤의 숙원인 근대화 개혁정책의 재추진과 경제개발사업을 위한 의욕적인 개발투자의 결과 경제를 과열시켰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자 다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 갔다.

샤는 1955년 자헤디 수상 후임에 후세인 알라를 재기용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샤는 헌법을 개정하여 법안 통과 정족수를 낮춤으로써 의회에서 반대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명세서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등 샤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사바크의 조직도 크게 확장하였다. 의회의 의석을 136석에서 200석으로 늘리고, 의회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1957년 4월에는 다시 알라 후임으로

마누체르 에크발(Manoucher Eqbal)박사를 수상에 임명하고, 부패정치의 타파와 토지개혁을 표방하였다. 샤는 이제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주적 양당제도의 채택이라는 이름아래 그의 측근에게 정당설립을 허용함으로써 1957년 5월 아사달라 알람(Assadallah Alam) 영도하에 야당인 인민당(Hizb-i Mardom)이 창당되었고, 1958년 2월에는 에크발 수상이 이끄는 여당인 국민당(Hizb-i Melliyun)이 창당되었다.

1960년 8월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 정당간의 경쟁으로 총 선거를 실시하였다. 여야 양당이 다 같이 샤의 측근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입법부가 샤의 개혁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무소속과 국민전선의 선거 참여가 승인되자 선거는 난립되었다. 부정선거라는 비난이 높아지자, 샤는 이로 인한 정국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선거무효화를 선언하고 에크발 수상을 해임하였다. 샤는 노련한관료 출신인 에마미(Jafar Sharif)를 수상에 임명하여 1961년 1월 재선거를 실시케하였다. 재선거결과 보수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하자 샤의 내핍계획과 개혁계획의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에마미는 美國의 경제원조 유치에 실패하고, 내핍조치들로 인기가 떨어진데다가 임금동결에 항의하는 교원 및 공무원과 경찰의 격렬한 대결로 비난이 고조되자 5월 집권한지 9개월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샤의 改革政策

샤는 모사데크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직언을 잘하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아미니(Ali Amini) 박사를 수상에 임명하고, 그의 주장대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샤의 칙령이 바로 입법부를 대신하게 되었다. 샤는 11월 토지개혁, 지방자치제 실시, 산업과 노동자의 보호, 교육개혁 등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미니 내각은 출발부터 전직 부패관료의 투옥 및 탈세방지 등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추방, 정부지출 억제와 인플레이션억제로 경제안정시책을 내세웠다. 1962년 1월 샤의 칙령으로 토지개혁법이 채택되었다. 아미니 내각은 토지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엄격한 개혁조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고조, 국민전선의 사바크 해체와 자유선거요구, 군비 삭감문제도 샤와의 대립 등으로 집권 14개

월만에 사임하였다.

1962년 7월 샤는 죽마지우이며 인민당 당수인 알람을 수상에 임명하고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지주 출신인 알람은 스스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헌납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샤의 개혁의지를 도와 토지개혁 및 정치적 부패의 추방에 주력하였다. 알람내각은 개혁계획을 논란 많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1963년 1월 샤의 백색혁명 강령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토지개혁, 선거법 개정, 삼림의 국유화, 국영기업의 대민불하, 산업노동자에 기업이윤 환원, 문맹퇴치 등 6개항에 걸친 백색혁명 강령은 국민투표에서 99.9%라는 유례를 찾지 못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종교주의자, 지주, 학생 및 중산층에 이르는 반대세력은 대대적인 시위를 이끌어 6월에는 모사데크 몰락후 최대의 폭동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알람내각은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였는데, 호메이니(Ayatollah Rouhollah Khomeini)를 비롯한 30여명의 종교지도자들이 투옥되었다. 9월에 총 선거를 실시하였다. 사바크와 내무부장관은 샤의 급진적 개혁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실격시켜 선거 직전에 급조된 신이란당(Hizb-i Iran Navin)의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게 하여 의회를 샤의 개혁정책의 협력자로 만들었다. 1964년 3월 신이란당을 이끄는 만수르(Hasan Ali Mansour)가 수상에 올랐다. 그는 경제안정, 공업화의 촉진, 토지개혁의 철저한 추진 등으로 샤의 개혁계획을 강력히 수행하여 갔으나, 1965년 1월 한 극단적 종교주의자에 의해 피살되었다.

호베이다 내각

재무장관 출신인 신임수상 호베이다(Amir Abbas Hoveida)는 만수르의 개혁정책을 계승하여 백색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1967년에는 6개항의 새 개혁정책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6개항은 농촌의료대의 설치, 기술교육 촉진, 농촌 법원 설치, 수자원의 국유화, 도시 및 농촌의 재건계획, 관료조직의 재편성 등이다. 또한 1967년 8월 헌법을 개정하여 왕위계승권을 규정하였으며, 10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왔던 샤의 대관식을 갖기도 했다.

호베이다내각은 석유정책을 유리하게 이끌어 막대한 석유수입을 가져왔다. 호베이다는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사회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군대와 경찰력을 강화하여 사지도형의 정치체제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성과로 호베이다는 1967년과 1971년에 시행된 총선에서 연속 2차에 걸쳐 승리를 거두었다. 이란 역사상 최장수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바크의 엄격한 감시와 강화된 군대 및 경찰 등의 힘을 배경으로한 샤의 탄압으로 국내정국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반대세력의 핵심은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근절은 어려웠다. 1965년 4월의 호전적 공산주의자에 의한 샤의 저격사건을 비롯하여 특히 1971년 이란 왕국 2500년 기념제를 전후한 여러 게릴라 사건들, 그리고 1973년 10월의 샤와 그 가족에 대한 납치 살해음모사건 등의 발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샤는 정당정치의 구조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느껴왔고, 1975년 3월에는 단일정당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신이란당과 인민당을 통합하여 호베이다수상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이란 부흥당(Hizb-i Rastakhiz)을 결성케 하였다. 6월의 총선거에는 신인들의 대거 진출을 가져와 제24기 의회는 85%의 신인으로 구성되는 새 기풍을 낳았다. 9월에 또다시 호베이다는 수상직에 올랐다.

샤의 몰락

샤는 굳은 개혁의지로 근대화 개혁과 공업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으로 민주화나 정당정치에 대해 회의를 갖고 강력한 군주독재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때로는 활발한 정당활동을 장려하여 서구식의 정당정치를 육성하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란의 정당활동은 샤의 정책에 추종하는 어용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샤는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사바크, 군대, 경찰 등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에 의한 대중요법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샤에 대한 국민의 근원적인 불만은 해소되지 못했고 특히 위로부터의 강제적 급속한 근대화와 공업화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의 불균형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불만세력을 증대시켰다. 인플레이의 만성화도 전반적 사회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되었다. 1977년에 이르러 대학생을 위시한 시위운동은 곧 각계 각층의 불만세력의 가세로 점차 격화하여 8월 최장수 수상의 명예를 누려오던 호베이다

도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호메이디의 사임으로 또다시 안정을 상실한 이란 정국은 이란 부흥당의 자유주의적 진보파인 아무즈가르(Jamshid Amouzegar)박사의 신내각으로도 회복되지 못했다. 1977년 10월부터 중산층과 산업노동자의 시위로 확산된 반사 운동은 1978년 6월 이후로 더욱 격화되었다. 시위대들은 언론자유, 검열 폐지, 의회의 권한 보장, 부흥당의 해산, 사법부의 독립, 농업의 보호 육성, 제국주의 외세배격, 호메이니의 복귀 등을 주장하였다. 샤는 8월 아무즈가르후임에 자파르 샤리프 에마미를 다시 수상에 기용하였다. 성직자 가계 출신인 에마미는 온건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하고 보수 종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슬람교의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두시위로 정국은 수습되지 않자 샤는 11월 아무즈가르를 해임하고, 황실 근위대 사령관 레자 아즈하리(Ghulam Reza Azhari)장군으로 군사정권을 선포하였다. 곧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79년 1월 샤는 국민전선의 의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샤푸르 박티야르(Shahpour Bakhtiyar)박사에게 조각을 위촉하였다. 박티야르는 계엄령 폐지, 자유선거 실시, 사바크의 해체, 팔레비 재단 자산의 동결 등을 약속하고,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에 대한 석유수출 중지 그리고 70억달러에 달하는 무기구입 계약의 취소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은 샤의 폐위마저 요구하고 나왔다. 샤는 계속되는 반대세력에 굴복하고 1월 15일 망명길에 올랐다.

호메이니의 등장과 회교革命

성직자 가문 출신인 호메이니는 샤의 백색혁명에 반대운동을 벌이다 투옥되었다가 1965년 이라크로 망명하였으며, 1978년 10월에는 다시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그는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반사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1978년 이란내의 반사파 세력의 시위가 격화되자 국내 종교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1979년 1월 13일 그는 망명중인 프랑스에서 시아파 고위 종교지도자와 민간인 등 15명으로 회교혁명평의회(Islamic Revolutionary Council)를 구성하고, 2월 1일 귀국하여 이른바 이슬람혁명을 본격화시켰다. 우선 호메이니는 2월 11일 박티야르수상을 해임하고, 메흐디 바자르간(Mehdi Bazargan)박사를 임시 수상에 임명하였으나,

실권은 혁명평의회가 장악하고 있었다. 3월말 정체 선택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4월 1일 이른바 회교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6월에는 회교혁명평의회가 마련한 새 헌법 초안이 발표되었고, 이의 심의가 8월에 선출된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Assembly of Experts, Mejlis-e-Khubregan)에 위임되었다. 12월 3일 개정된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99.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1980년 1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3월 14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를 구성하였다. 대통령에는 혁명평의회 의장이던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Abolhassan Bani-Sadr)가 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총선 결과로는 제1차 선거에서 98석, 그리고 제2차 선거에서 136석이 선출되었는데, 호메이니 노선을 추종하는 아야톨라 베헤스티(Ayatollah Beheshti)가 이끄는 회교 공화당(Islamic Republican Party)이 130석을 차지하였다. 5월 28일 총의석 270석 가운데 213석만으로 첫 의회가 개원되었다. 의회의 성립에 이어 7월에는 혁명평의회가 해체되고 체제가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이란의 정국은 당파간의 경쟁과 소수민족의 등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왕정타도에 성공한 혁명세력은 종교세력뿐만 아니라, 극우파에서 극좌파에 이르는 여러 세력 그리고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민중에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수습 단계에서 시아파 회교세력의 독단적 권력장악으로 다른 세력의 반발과 알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란 혁명세력의 주류는 강경 시아파로서 아야톨라 베헤스티의 회교 공화당이다. 그러나 같은 시아파이지만 온건세력으로서 혁명평의회를 이끌어 가던 진보적 회교지도자인 아야톨라 마흐무드 탈레가니(Ayatollah Mahmoud Talegani: 1979. 9 사망)나, 아야톨라 샤리아트 마다리(Ayatollah Shariat Madari)가 이끄는 무슬림인민공화당(Muslim People's Republican Party)은 회교공화당과는 대립하고 있다. 세속적 근대적 의회주의를 주장하고 지식인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세력인 국민전선을 대표로 하는 초대수상 메흐디 바자르간은 1979년 11월 사임으로, 그리고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는 1981년 6월 겸직하고 있던 총사령관직과 대통령직에서 축출됨으로써 호메이니와 결별하였다. 회교공화당의 과격파와 불화하던 바니 사드르는

프랑스로 망명하였고, 이슬람 게릴라 단체인 이란 무자헤딘 칼크(*Iranian Mujaheddin Khalq*)의 지도자로 역시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마수드 라자비(*Massoud Rajavi*)와 연합하여 한때 저항 국민회(*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1984년 4월 라자비의 對 이라크 정부 협력주장을 거부한 바니 사드르 는 저항 국민회를 떠났다. 그후 라자비도 1986년 6월 바그다드로 옮겼다. 또한 국민전선을 대신한 마틴 다프타리(*Matin Daftari*)의 국민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전통적 좌파세력인 공산주의 투데당, 좌파 게릴라 단체인 마르크스주의 페다이(*Fedayin*)과 회교 사회주의 무자헤딘(*Mujaheddin*), 그리고 소수민족인 쿠르트족, 아랍족, 발루치족 등도 반호메이니 세력들이다.

사드르가 사임한 후 7월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은 3인위 대통령회의가 관장하였다. 6월 28일에는 회교 공화당 본부에서 베헤스티 당수를 위치하여 4명의 장관, 6명의 차관 그리고 20명의 이슬람 자문회의의원이 폭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 29일 또 다시 폭발물 사고가 발생하여 7월 24일자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 수상 무하마드 알리 라자이(*Muhammad Ali Rajai*)와 그의 후임 수상 무하마드 자바드 바호나르(*Muhammad Javad Bahonar*)가 사망하였다. 9월 아야톨라 무하마드 레자 마흐다비 카니(*Ayatollah Muhammad Reza Mahdavi Kani*)가 수상에 임명되었다. 10월 2일 다시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이슬람 공화당 지도자인 호자틀 이슬람 알리 하메네이 *Hojatoleslam Ali Khamenei*가 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10월 29일 카니 수상의 사임으로 미르 후세인 무사비(*Mir Hussein Mousavi*)외상이 수상에 올랐다. 하메네이 대통령과 무사비 수상 체제는 비교적 안정을 굳혀왔다.

하메네이-무사비 체제의 정착, 안정에도 불구하고 파쟁과 그에 따른 폭력사태는 근절되지 않았다. 1982년 7월 2일 호메이니의 대변자인 모하메드 사두기 *Mohammed Sadougi*의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1987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 혁명 이후 1985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7,000여명에 대한 강제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편 이란 최강의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무자헤딘 칼크는 1981년 6월

이후 무려 70,000여명이나 강제처형되었다고 주장한다.

1983년 5월 4일에는, 혁명 이후 성직자가문 출신인 키아누리를 내세워 호메이니의 혁명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여 가던 투데당에 소련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해체령이 내려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명의 소련 외교관도 추방되었다. 8월에는 정부내의 당파싸움으로 상무장관과 노동부장관의 사임이 있었고, 곧이어 3명의 각료가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퇴임 각료들은 상인계층 출신의 우익들로, 기술관료출신 각료들이 주장하는 국유화와 토지개혁 계획을 종교와 사리사욕을 구실로 거부했다.

1984년 4월 15일과 5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제2대 의회를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의사, 과학자, 공학자 등 전문 기술인의 대거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초대수상을 역임한 바 있는 바자르칸 박사가 이끄는 이란의 유일한 공식 승인된 야당인 「해방운동」(*Liberation Movement*)은 이란에 비민주적 상황이 만연되어 있음을 항의하여 선거를 거부하였다. 5월 28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신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신인의 대거 진출은 바로 무사비수상의 경제개혁정책에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8월 의회의 내각 신임에 대한 법 개정으로 각료의 신임투표에서 무사비 내각중 5명의 각료가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무사비 체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집권을 계속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1985년 8월 16일의 선거에서도 85.7%라는 압도적 지지로 중임되었고, 10월 무수한 교체설에도 무사비를 수상에 연임시켰다. 그런데 무사비내각은 하메네이 시각으로도 지나치게 급진파여서 의회의 신임에서 논란이 많았으며, 경제·재정장관과 광업부장관등 2명의 각료에 대한 신임은 3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1986년 1월에야 겨우 얻을 수 있었다.

1985년 11월 전문가회의는 이 나라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호메이니의 사후 후계 예정자로 아야톨라 후세인 알리 몬타제리(*Ayatollah Hussein Ali Montazeri*)를 지명하여 호메이니 이후의 체제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1983년 옛 회교법을 도입하여 회교 혁명의 보수 지향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절도범에 대한 절단형, 간음죄에 대한 태형 및 돌팔매질 인민 재판식의 형벌, 여성의 복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다시 도입하였다. 더우기 1985년에는 이러한 보수적 회교법이 청년 회교 원리주의자들의 요청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1989년 4월 16일에는 160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의 중요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란 · 이라크의 戰爭

이란은 혁명세력의 분열과 파쟁에 직면하여 국민적 단결을 구세주적 보편주의적 교리에 입각한 혁명의 이념으로 성취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시아파 회교를 통한 주변국에로의 혁명 수출을 기도하였다. 이란의 혁명 수출 전략에 주변국들은 많은 위협을 받았으며, 특히 샤프트 알 아랍(Shatt-al Arab) 수로문제로 인한 국경분쟁의 오랜 경험을 공유한 이웃 이라크가 가장 큰 위협을 느꼈다. 결국 이란은 1980년 9월 이라크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란은 이 전쟁을 통하여 성전(Jihad) 이란 이름하에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여 갔으나, 오랜 소모전으로 국력의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란은 1988년 7월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의 제598호 결의를 수락함으로써 8년간 계속되었던 이라크와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제 이란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2. 政 體

현재 이란의 정체는 회교 공화제이다. 회교 공화제란 회교의 원칙과 규범을 기초로 한 정치, 경제, 문화적 제도를 포괄하는 체제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원칙과 의회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적 제도이나, 특히 인간에 대한 알라신의 중치권을 중시, 강조하는 회교법 체계 안에서 기능을 하는 체제이다. 회교의 관점에 입각하면, 정부란 어느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하여나 또는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봉사하여도 안된다. 공동의 신앙과 견해를 기초로 한 국민의 정치적 이상의 대표적 결정체이며 최종의 목표인 알라로 향한 지적, 이념적 발전과정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회교 공화제는 다른 일반적 회교국가의 민주제와는 다르다. 일반 회교국가에서는 정부의 원칙이나 지배체제의 기본 틀 까지도 행정권과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만, 회교 공화국에서는 행정권과 정부형태의 결정에만 국민의 뜻

이 관여하여 체제의 원칙이나 기본틀은 이미 회교규범과 신의 명령을 기초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회교체제의 채택여부와 회교체제 설립을 위한 자유로운 표결권을 가질 뿐이다.

3. 憲 法

이란의 헌정사는 20세기 초로 소급된다. 1906년 샤 무자파르 알 딘(Shah Muzaffar al-Din)은 개혁주의자들의 요구를 수락하여 8월 입헌회의 소집칙령을 공포하였고, 12월 30일 입헌회의가 제정한 헌법을 샤가 비준, 공포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란의 입헌군주체제가 시작되었다. 이 헌법은 1875년의 프랑스 헌법을 모방하였다. 1년뒤인 1907년 10월 7일 추가 기본법(Supplementary Fundamental Law)을 제정하였다. 추가 기본법은 벨기에 헌법과 프랑스 헌법을 혼합하여 모형으로 하였다. 당시 헌법은 의회의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상원은 소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원이 설치되기까지는 하원에서 단순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안은 샤의 비준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재정 예산안의 심의권을 갖지 못했다.

1921년 쿠데타로 실권을 갖게 된 레자 칸은 1925년 제5기 의회에서 아메드 샤를 폐위하여 카자르왕조를 종식시키고, 역사적인 팔레비 왕조를 건설하였다. 레자 샤는 1949년 헌법상의 스스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상원을 설치하고, 샤의 의회 해산권과 새 선거 실시 명령권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2월 처음으로 60석의 상원이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1979년 회교혁명으로 종식되었다.

현행 이란 회교 공화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12개장 175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회교혁명평의회가 1979년 6월 18일 헌법 초안 기초를 완성하였고, 이의 심의를 위하여 8월 3~4일 72명의 전문가 회의(Mejlis-e-Khubregan) 의원 선거가 있었다. 8월 19일 헌법 초안의 심의를 전문가회의에 위촉하였으며, 11월 15일 전문가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헌법안이 12월 2~3일 국민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99.5%라는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이 헌법이 통과되었다.

새 헌법은 前文에서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1963년 백색혁명을 제국주의와의 결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회교 투사들의 불굴의 항거와 승리로 회교정부를 수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란 회교 공화국의 헌법은, 회교 공동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반영하는 회교적 원칙과 규범을 기초로 한 이란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제도를 설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제1-14조)은 총칙으로, 이란을 회교 공화국(제1조)이라고, 그리고 유일신과 그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 등을 건국이념으로(제2조)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국교를 회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교 가운데에서도 12이맘 시아파임을 명시하여(제12조) 철저한 제정일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교조항은 다수 시아파 우위적 조항으로 소수종파 및 소수민족에 대한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이란 주민의 평등성을 규정하고는 있으나(제19조) 집권 시아파에의 권력집중을 기본구조로 한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종교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성의 규정도 실상 현실적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2장은(제15~18조) 공용어, 문자, 월력, 국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장은(제19~42조) 국민의 기본권을, 제4장은(제43~55조) 경제 및 재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란의 경제제도를 국영기업, 협동기업, 사기업의 셋으로 나누며(제44조), 사유재산의 인정도 명시하고 있다.(제47조)

제5장은(제56~61조) 주권 부문인데, 신권정치(제56조), 삼권의 분립과 독립(제57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제6장 제62~99조)는 회교자문회의라고 부른다. 이는 입법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상위 기구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헌법수호위원회에 상정되어 위헌 여부와 회교법 위배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제7장은(제100~106조)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며, 제8장은(제107~112조) 이란의 독특한 지도자 파키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파키는 최고 종교지도자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권력을 관장하며 종신제로 이란 회교 공화국의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행정부(제9장제113~151조)의 수반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이며, 파키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은(제152~155조) 외교정책, 제11장은(제156~174조) 사법부, 제12장은(제175조) 대중매체 등에 관한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공중도덕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신념을 모독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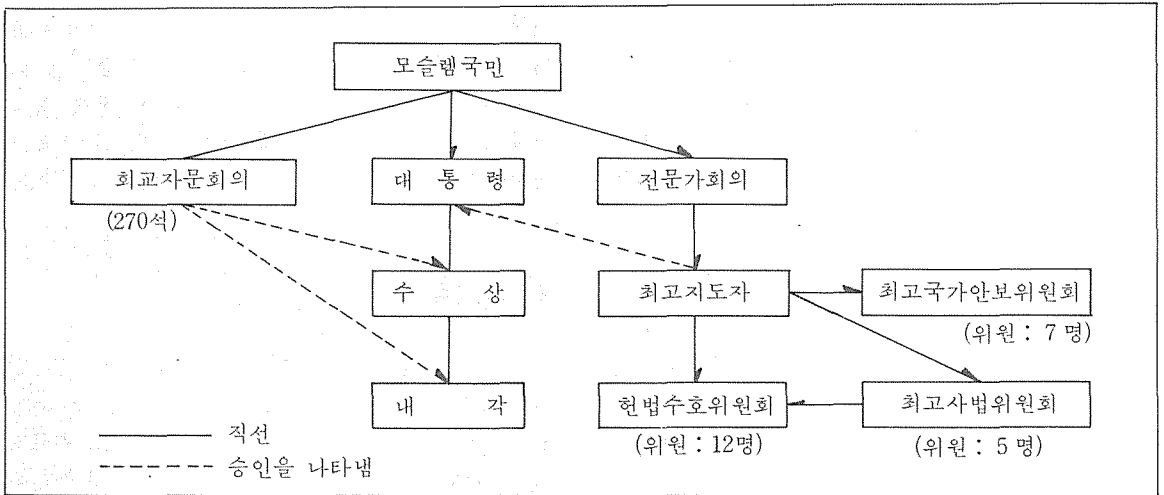
4. 政府組織

이란 회교 공화국의 정부조직은 3권분립과 의회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종교적 색채가 크게 강화되어 있다. 의회의 공식명칭을 회교 자문회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뿐만 아니라, 회교교리와의 상충 여부를 가리는 헌법수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상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회교지도자인 최고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최고지도자는 역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되는 독특한 제도가 창안되어 있다. 이란의 정부조직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最高 指導者(Velai-e-Faqih)

헌법은 12번째 이맘이 권위되어 있는 동안 지도자의 필요성과 통치의 원칙에 맞추어 율법자 가운데 파키(Faqih)라는 최고 지도자에게 국가의 지도권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키는 학문적 자질과 경건한 신앙심을 갖추어야 하며(제109조 1항), 국가통치를 위한 용기와 권위,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제109조 2항), 그리고 국민 대다수에 의해 지도자로서의 논란이 없어야 한다(제5조). 지도자(Vali-e-Faqih)는 정부의 정책을 신의 명령과 조화시키고 감독한다. 현재 아야톨라 이맘 호메이니가 종신제 파키직에 있으며, 그는 국가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제107조). 따라서 사실상의 이란의 최고 실력자는 바로 파키직에 있는 호메이니이다. 파키의 권한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종교율사 선임권, 국가최고 사법위원회위원 임명권, 최고 군사통수권, 합동참모회의의 의장 임명권, 이란 회교 혁명군 총사령관 임명권, 국가최고안보위원회 선임권, 육해공군 총사령

이란의 정부조직



관의 임명, 전쟁 및 국가총동원령 선포권, 대통령 신임 및 해임권, 사면 및 감형권등(제110조)이다.

專門家會議 (Mejlis-e-Khubregan)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72명의 이슬람법에 조예가 깊은 율법학자로 구성된다. 1979년 8월 3일 선출되었고, 12개장 175개조의 새헌법안을 심의하여 11월 15일 최종 승인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이란의 실질적 최고 실력자인 파키의 선출권을 갖고 있으며, 호메이니옹을 파키로 선출하였다. 또한 1985년 11월에는 호메이니의 후임으로 아야톨라 후세인 알리 몬타제리를 선출하여 두었다.

회교자문회의 (Majlis-e-Shura Islami)

회교자문회의는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대외정치 체제 및 다중통치권의 대외적 표명기관이다. 의원은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제63조). 총의석은 270석이며, 소수 종교도 집단인 조로아스터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집단은 각 1명씩의 의석을 배분받고 있다(제64조). 회교자문회의의 권한으로는 법률 심의권(제74조), 해석권(제73조), 제정권(제71, 72조), 국정 감사권(제76조), 국제조약 동의권(제77조), 수상 및 국무위원 신임권(제87조),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제89조) 등이 있다

憲法守護委員會 (Shura-e-Nagahban)

헌법수호위원회는 회교자문회의의 의결이 회교의 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제96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은 지도자회의가 임명한 6명과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교자문회의 동의를 받은 6명으로(제91조)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에 위원의 2분의 1이 교체된다.(제92조). 헌법수호위원회는 헌법의 해석권 외에도 대통령선거, 총선거 및 국민투표의 감독권도 갖는다(제99조).

大統領

대통령직은 파키 다음으로 국가의 공적 최고위직이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직선제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증임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자격 조건은 이란 국적을 가질 것, 친취적일 것, 좋은 가문 출신일 것, 깊은 신앙심의 소유자일 것, 정직할 것, 이란의 국교와 회교혁명이념에 충실할 것등 매우 추상적인 규정들로 되어 있다(제115조). 대통령은 수상 임명권(제124조), 국제조약 체결권(제125조), 법규에 제심 요청권(제126조), 국무회의 소집 및 의장(제127조),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제128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國務委員

대통령의 임명과 회교자문회의의 동의를 얻은 수상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하나 국무위원은 회교자문회의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제133조). 수상은 내각의 수반이 되며 회교자문회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134조). 수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위원의 해임권도 갖는다(제136조).

最高司法委員會

사법권은 독립된 권력이며, 사법부는 회교운동을 수행하고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사법부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고사법위원회가 설치된다(제157조), 최고사법위원회는 최고법원의 장, 검찰총장, 전국 법관에 의해 선출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임될 수 있다(제158조).

5. 정당과 利益集團

이란에는 서구식의 정당은 없다. 다른 中東지역 여러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념이나 정강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인물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당파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체로 강력한 한 개인의 사당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많은 政黨의 부침이 있었으나, 현 이란 회교 공화국의 공식승인을 받은 정당은 이란해방운동(Liberation Movement of Iran)뿐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이익집단들이 있다. 회교혁명에 참여한 정당과 단체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이슬람共和黨(Islamic Republican Party)

설립일시 : 1978년

설립자 :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

당수 : 아야톨라 베헤스티(Ayatollah Beheshti)

정치노선 : 호메이니노선

개관 :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영도아래 회교혁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혁명후 첫 총선거에서 아야톨라 베헤스티 당수와 더불어 234석 가운데 130석을 얻어 집권 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당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해체되지 않으면

당내의 불화와 분열을 조래하게 될 것이라는 당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호메이니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투데黨(Tudeh Party)

설립일시 : 1942년

설립자 : 에라니(Erani) 박사의 52명의 공산주의자
임시당수 : 알리 카바리(Ali Khavari)

지지세력 : 노동자, 봉급노동자, 전문인, 학생, 지식인
정치노선 : 친소련 공산주의 노선, 좌익

개관 : 이란 공산당으로서 투데는 대중이란 뜻이다. 그 기원은 1904년 페르시아 사회민주당(Persian Social Democratic Party)에로 소급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투데당은 獨逸의 교육을 받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단에 의해 조직되었다. 소련의 지원으로 한때 39개의 신문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에라니박사는 옥사하였으나, 나머지 당원들은 레자 샤의 폐위와 더불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투데당은 1949년 금지된 이래 줄곧 금지령이 철회되지 않았으며, 친소노선을 지향하여 지하운동으로 일관하였다. 1979년 회교혁명으로 샤가 몰락하자 투데당의 反이슬람적 인상을 불식하고 호메이니와의 교섭을 위하여 소련은 이라즈 에스칸다리(Iraj Eskandari)를 제거하고, 누르 울 딘 키아누리(Nur-ul-din Kianuri)를 내세웠다. 키아누리는 1907년 희생된 저명한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파즈롤라 누리(Ayatollah Fazlollah Nuri)의 아들이다. 키아누리는 호메이니를 지지하고 나서 호메이니의 호감을 샀고, 샤의 통치하에 있었던 금지령이 철회되지 않았으나, 호메이니 체제의 목적으로 많은 투데 망명 지도자들의 귀국과 국내 활동이 다시 활기를 가져왔다. 투데당은 테헤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25,000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 마르돔(Mardom)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당 선전물들을 인쇄, 배포하고 키아누리의 연설문 녹음 테이프까지 제작 배포하여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1983년 4월 투데당의 세력확장에 위협을 느낀 호메이니 정권은 당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본부와 신문을 폐쇄하고 黨을 소련의 앞잡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공식 해체하였다. 키아누리 당수의 구속으로 1984년 알리 카바리(Ali Khavari)가 임시 당수로 선출되었다.

• 이란 쿠르트 民主黨(Democratic Party of Iranian

Kurdistan : Mahabad)

설립일시 : 1945년

사무총장 : 아브다르 라흐만 카셈루 (*Abdar-Rahman Qassemrou*) 박사

정치목표 : 쿠르트 지역의 자치권 획득

당원수 : 약 54,000명

개관 : 저항 국민회의의 團體會員

• 페다예네 칼크 (*Fedayeen-e-Khalq*)

설립일시 : 1971년 3월

개관 : 두 개의 대학생조직의 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 하나는 1963년에 조직된 *Bezhan Jajani, Abbas Sourki, Ali Akbar Safai Farahani, Muhammad Ash-tiyani, Hamid Ashraf* 등 5명의 테헤란 대학생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1967년 도시게릴라에 관한 토론을 위하여 마샤드 (*Mashad*) 출신의 테헤란 상경 두 대학생 *Masoud Ahmadzadeh*와 *Amir Parvez Poyan*에 의해 결성된 비밀조직이다. 전자가 도시 그룹인데 반하여 후자는 지방 그룹이다. 이들은 대체로 투데당, 국민전선 등에 가담하거나 지지로 반샤운동 벌리거나 또는 그러한 가문 출신으로 오랜 투쟁과정에서 많은 투옥 경험을 지닌 과격한 성향을 지닌 자들이다. 무장한 지방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조직으로 혁명이 시작되자 팔레비의 군사력에 도전하고 표면에 나섰다.

• 이란 공산당 (*Hezb-e-Komunist Iran*)

설립일시 : 1979년

서기장 : 아자르운 (*Azaryun*)

개관 : 투데당이 소련의 조종을 받을 때 설립되었다.

• 코말라 (*Komala*)

설립일시 : 1969년

지도자 : 아브라힘 알리자데 (*Ibrahim Alizadeh*)

노선 : 마르크스-레닌주의

개관 : 이란 공산당의 친소 공산주의 조직가운데 쿠르트파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전체 이란 쿠르트 전투요원의 약 10%를 구성하고 있다. 급진적 경향을 갖고 있다.

• 무자헤디네 칼크 (*Mujaheddin-e-Khalq*)

설립일자 : 1986년

지도자 : 마수드 라자비 (*Massoud Rajavi*), 마르얌 라자비 (*Maryam Rajavi*)

개관 : 페다예네 칼크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 이미 비밀리에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1965년 *Muham-mad Hanifnezhad, Said Mohsen, Muhammad Asgari-zadeh, Rasoul Moshkinfam, Ali Asghar Badizadegan, Ahmad Rezai* 등 전 해방운동 출신과 테헤란 대학졸업생 6명으로 결성되었다. 페다예네 칼크가 국민전선의 마르크스주의파인데 반하여 무자헤디네 칼크는 국민전선의 종교주의 당파이며 특히 당원 모두가 예외없이 시아파 가문출신이다. 또한 페다예네 칼크가 주로 인문사회 과학계 학생들을 흡수하는데 반하여 무자헤디네 칼크는 주로 이공계 학생들로 충원하는 등 대조적이다. 1971년부터 무력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 이후 공산주의에도 관심을 보였다. 공산주의와 회교주의의 양립 결과, 1975년 공산주의파와 회교주의파로 분열하였다. 이들은 회교혁명시 인민 성전전사라는 이름의 이슬람 게릴라조직의 주전부대역을 담당하였다. 1987년 6월에는 국민해방군을 흡수하였고, 국민저항회의의 한 단체회원이다.

• 무슬림인민 공화당 (*Muslim people's Republican Party*)

소재지 : 타브리즈 (*Tebriz*)

사무총장 : 호세인 파르시 (*Hossein Farshi*)

당원수 : 350만명 (아제르바이잔 250만)

• 國民民主戰線 (*National Democratic Front*)

설립일시 : 1979년 3월

지도자 : 헤다야톨라 마틴 다프타리 (*Hedayatollah Matin Daftari*) 1982년 1월 이후

개관 : 근대적 의회 민주주의노선을 지향하는 진보세력으로 지식인과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북고적 회교세력과의 제휴를 거부하는 反호메이니파이다.

• 國民戰線 (*National Front* : 국민전선군 연합)

설립일시 : 1949년 10월

설립자 : 모사데크 등 20명

노선 : 의회민주주의

개관 : 모사데크를 위시한 교수,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등 20명으로 결성하였으며, 곧 지식인, 상인, 학생 등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과 단체가 가담하여 포

사데크를 지지하였다. 1953년 8월 모사데크가 실각하자 지도자들의 대거 검거로 거의 해체되다시피 되었다. 1954년말 석방된 인사 가운데 모사데크와 비밀 접촉을 하던 Sanjabi, Hasebi, Zirakzadeh, Zanganeh, Asghar Parsa 등 전 이란당(Iran Party) 지도자들과 청년당원 Shahpour Bakhtiyar, 국민당(National Party) 창설자 Foruhar, 공산주의자 Khaleh Maleki 등이 재결합하여 국민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956년 입헌군주제에 침해를 이유로 또다시 일대 검거 선봉이 불어 대부분의 지도자가 검거된데다 지도부의 사분오열까지 일어나 거의 몰락하였고 1957년에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1960년에 이르러 탄압이 다소 느슨해지자 Sanjabi, Foruhar, Khaleh Maleki 등은 각각 이란당, 국민당, 사회주의회(Socialist Society)등을 재창당하고, 국민전선을 재결성하여 이를 제2국민전선(Second National Front)이라 불렀다. 한편 국민저항운동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던 두 개혁주의 동지 Mehdi Bazargan과 Mahmud Talegani도 이란해방운동(Liberation Movement of Iran)을 결성하고 다시 국민전선에 가담하였다. 이리하여 국민전선은 1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큰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63년 6월 유혈폭동으로 불법화 되었으며, 지도부도 크게 분열되었다. 1965년 국민전선은 두 개의 블록으로 대립·분열하였다. 대부분 이란당원으로 구성된 제2 국민전선파는 유럽 이란학생동맹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지 Bakhtar-i Ermuz를 계속 발간하고 세속적 민주국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해방운동, 국민당, 사회주의회 등이 구성한 블록은 제3 국민전선이라 이름하고 주로 프랑스, 미주지역 학생층에서 활약하면서 자유이란(Iran Azad)과 뉴스회보(Khabarnameh)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호메이니 등 망명 종교지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1977년 5월 단속이 다소 소홀해지자 반사파의 저항운동이 다시 일어났고, 6월 국민전선 지도자 Sanjabi, Foruhar, Bakhtiyar 등도 가담하고, 시장상인 계층 및 사회주의회 대표들과 함께 국민전선을 부활하였다. 그리하여 이란 민족당(Iran National Front Forces), 이란당(Iranian Party), 이란 학생회(Society of Iranian Students), 페다예네 칼크, 무자헤디네 칼크, 이란해방운동 등 반사파의 다양한 세력들의 결집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호메이니 일파의

복고적 회교 강경노선에 대해 주로 근대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주장하는 지식인 反호메이니 세력들이 연합하였다.

• 이란 해방운동(Nelzat-Azadi, Liberation Movement of Iran)

설립일시 : 1961년

사무총장 : 메호디 바자르간(Mehdi Bazargan) 박사
 주요인사 : 사하비(Sahabi) 교수, 야즈드(Yazdi) 박사, 사드르(Sadr) 박사, 사바기안(Sabaghian) 공학자, 타바솔리(Tavassoli) 공학자 등

노 선 : 회교에 의해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

개 관 : 국민전선에 가입한 많은 단체 가운데 회교혁명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야당이다. 1984년에는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그후 1985년 8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는 메호디 바자르간 박사가 출마코자 하였으나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 범이란주의당(Pan-Iranist Party)

설립일시 : 1949년

설립자 : 모센 페제스크푸르(Mohsen Pezeshkpour)와 다리우스 포루하르(Darius Foruhar)

지도자 : Mohsen Pereshkpour

노 선 : 극우파로 대이란(Great Iran)을 주장

개 관 : 두 테헤란 대학생 페제스크푸르와 포루하르가 초민족주의적 조직으로 결성하였다. 그러나 페제스크푸르의 모사데크에 대한 존경심에 의심을 가진 포루하르는 곧 페제스크푸르와 결별하여 별도의 국민당(National Party)을 만들었다.

• 노동자 자유투쟁기구(Sazmane Peykar dar Rahe Azadieh Tabaq Kargar)

노 선 : 마르크스-레닌주의

개 관 : 勞働者 階層의 自由鬪爭 기구이다.

• 저항국민회의(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설립일시 : 1981년 10월

설립자 :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Abolhasan Bani-Sadr), 마수드 라자비(Massoud Rajavi)

지도자 : 마수드 라자비

개 관 : 전 대통령 아불하산 바니 사드르가 호메이니 일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자 파리로 망명하였고, 반정 게릴라조직인 무자헤딘 칼크의 파리 망명 지도자인 마수드 라자비와 함께 연합하여 이 조직을 세웠다. 1984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의 지하조직들을 흡수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라자비가 이라크정부와의 관계를 밀착시키자 이에 반대한 바니 사드르는 1984년 저항국민회의를 떠났다. 1986년 프랑스정부는 라자비가 파리를 떠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라자비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본부를 옮겼다. 1987년 6월 20일 라자비는 무자헤딘의 국민해방군 조직을 선언했다.

• 이란 저항국민운동 (*National Movement of Iranian Resistance*)

지 도 자 : 샤푸르 빅티야르 (*Shahpour Bakhtiyar*) 박사

6. 言 論

이란의 여론은 대체로 언론기관에 의해 유도되고 있으며, 현재 이란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매체도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일간지

• Jomhuri Islami (공화 이슬람)

소 재 지 : 테헤란

발행언어 : 이란어

개 관 : 이슬람공화당 기관지

• Abrar (*Rightly Guided*)

설립일시 : 1985년

소 재 지 : Apadan Ave. 198, Abbasabad, Teheran

조 간 지

• Resalat (*The Message*)

소 재 지 : Teheran

개 관 : 우익 조직 Resalat의 기관지

소 유 자 : Ayatollah Ahmad Azari-Qomi

• Ettela'at (*Information*)

설립일시 : 1925년

발행언어 : 이란어

소 유 자 : Mostazafin Foundation (파키의 직접검열 하의 1979. 10~1987. 1)

편 집 인 : Mr. Shirani

발행부수 : 25만부 (석간지)

소 재 지 : *Khayyam St., Teheran*

• Kayhan (*Universe*)

설립일시 : 1941년

발행언어 : 이란어

소 재 지 : Ferdowsi Ave., Teheran

자 매 지 : Kayhan International (영문 일간지, 편집 장 : *Hossein Raghafie*)

Kayhan Arabic (아랍어 일간지)

Kayhan Turkish (터어키어 주간지)

Kayhan Havai (이란어 해외교포용 주간지)

Zan-e-Ruz (오늘의 여성, 이란어 주간지)

Kayhan Varzeshi (세계의 스포츠, 이란어 주간지)

Kayhan Bacheha (어린이 세계, 이란어 주간지)

Kayhan Farhangi (세계의 문학, 이란어 월간지)

소 유 자 : Mostazafin Foundation (파키의 직접검열 하의 1979. 10~1987. 1)

편 집 인 : Sayed Hassan Shah-Sheragi

발행부수 : 35만부 (석간지)

• Tehran Times (테헤란 타임즈)

설립일시 : 1979년

발행언어 : 영어

소 재 지 : *Iranshahr Ave., Homa St., Block2, Teheran*

편 집 인 : M.B. Ansari

• Alik

설립일시 : 1931년

발행언어 : 아르메니아어, 석간지

소 재 지 : *Jomhoori Islami Ave., Alik Alley, Teheran*

소 유 자 : A. Ajemian

(2) 정기간행물

- Al-Tawhid(영문 계간지, 아랍문 격월간지, 우루두문 계간지)
- Al-Huda(아랍문)
- Echo of Islam(영문 월간지)
- Mahjubah(영문 월간지)

(3) 라디오 및 TV방송

- 이슬람 이란공화국 방송사(*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소재지: 테헤란

사장: 무하마드 하시미(*Muhammad Hashemi*)

개관: 회교 혁명후 새 언론법에 따라, 기존 공보부 산하의 이란 라디오 방송국(*Radio Iran*, 1940년 창설), 국영 방송사인 국립 이란 텔레비전(*National Iranian Television*, 1967년 창설), 그리고 민영 상업방송사인 이란텔레비전(*Television of Iran*, 1958년 설립)을 통합하여 새로이 발족된 반자치 비상업 공영 방송기관이다. 이 방송사는 2개의 TV 채널과 3개의 라디오 채널을 갖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은 세캄(*Secam*) 방식 천연색 체제로 방영하며, 수도 테헤란에 2개의 제작소가 있으며, 전국에 28개 지방방송국을 두고 있다. 라디오 방송망은 이란 회교 공화국 소리(*Voice of Islamic Republic of Iran*)의 3개의 채널로 전국에 걸쳐 있다. 특히 이란 방송은 유럽 전역, 소련 서남부지역, 아세아 전역,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일부 미주지역에까지 송출되는 해외 방송망을 갖고 있다.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시리아어, 아제르바이잔어, 발루치어, 반다르어, 다르어, 파르스어, 쿠르드어, 마잔다란어, 파슈투어, 투르코만어, 터키어, 우루두어 등 여러지방 언어 방송외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터키어, 아랍어, 쿠르드어, 우루두어, 파슈투어, 아르메니아어, 벵갈어, 러시아어, 그리고 파르스어의 특별 해외방송이 있다. 또한 제3 채널은 코란 낭독과 그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엮어진 종교방송 채널이다. 1986년 집계에 의하면 라디오 보유 대수는 1,000만대 이상이며 TV 보유대수는 210만대이다.

7. 주요 정치 문제

이란의 주요 政治問題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소수 宗

敎문제와 소수민족문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 소수 종교문제

이란은 호메이니 등장 이후 이슬람혁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 회교 가운데서도 시아파를, 그리고 12이맘파를 신봉하는 세력의 독점적 권력집중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왕정 타도에 참여한 세력은 비단 종교세력뿐만이 아니며 더우기 종교세력 가운데에서도 시아파만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혁명에 가담한 反샤파 세력가운데 비종교세력은 비록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하였으나 이슬람 특히 12이맘 시아파세력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 오히려 모사데크이후의 민족주의적 정치이념에 대한 향수와 추구에서 반샤운동 대열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非宗教세력과 더불어 집권 핵심세력이 아닌 소수종교도의 불평등은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혁명이래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요인암살 및 폭사사건등 폭력사태의 연속 발생은 이러한 갈등에서 빚어진 분열상을 입증하고 있다. 이란의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총인구 약4,500만 가운데 약 95%가 이슬람교도이며 소수종교도에는 기독교도, 유대교도, 조로아스터교도, 네스트리아교도(경교도), 바하이교도 등이 있다. 소수 종교도 가운데에는 기독교도가 최대 집단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아르메니아인이 가장 많다. 또한 이슬람교도 가운데에도 집권 시아파가 절대 다수이긴 하나 수니파도 약 15%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소수 종교도들은 종교나 종파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고 동시에 민족적 차이를 지니고 있어서 소수종교도 문제는 동시에 소수 민족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더해 준다.

(2) 소수민족문제

이란에는 소수종교도 문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문제도 적지 않은 국내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많은 종족과 민족의 이동에 중요한 통로로서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란의 주민은 인종학상 기원이 다른 여러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고원지대에는 이란인 또는 이라노-아프간(*Irano-Afghan*)이라 불리우는 아리안(*Aryan*)계의 한 분파가 분포해 있고, 산악지방에는 여

러 작은 그룹의 유목민, 아제르바이잔 및 카스피해 연안 지방에는 코카스계의 조오지(Georgia)인, 시르케시아(Circassia)인, 메세드(Meshed)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방에는 터어키(Turkey)계의 여러 부족, 자그로스 남부 연안지방에는 이란-아프간-인도계의 혼혈부족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목민에는 샤흐세벤(Shahseven), 쿠르드(Kurd), 루르(Lur), 박티아리(Bakhtiari), 카스카이(Qashqai), 마마스니(Mamasani), 쿠 갈루이(Kuh Galui), 발루치(Baluchi), 브라후이(Brahui), 캄세(Khamseh) 등 여러 부족이 있다. 이들 주민은 민족별로 나누어 보면 아리안족이 70%, 터어키족이 25%, 그리고 아랍 및 기타가 5%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으로는 아르메니아(Armenia)인, 유대인, 아랍인, 쿠르드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종파와 결부시켜 보면 아리안족은 90%가 시아파이며 10%가 수니파이다. 터어키족도 95%는 시아파이며, 5%가 수니파에 속한다. 그러나 아랍족은 시아파 70%에 수니파 30%이며, 쿠르드족과 발루치족은 수니파가 절대 다수여서 각각 65%, 80%에 달한다. 이와 같은 많은

이민족 이종교도 집단은 부족 엘리트 중심의 복수사회를 형성하여 왔고, 팔레비 왕조이후 복수사회의 통합 작업이 크게 진척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이란의 국내 정치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쿠르드족은 이란 뿐만 아니라 이웃 이라크, 터어키의 3개국 국경지역에 분포하여 이들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어 이 3개국 가운데 어느 일국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월경을 함으로써 난을 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부의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쿠르드족은 회교혁명 이후에도 자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반호메이니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란의 정치 불안요인으로는 비록 불법화되긴 하였으나, 전통적 좌파세력이며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투데당, 좌파계릴라단체인 공산主義 페다인 그리고 무슬림 사회주의 무자헤딘 등 과격파들이 있다. <계속>

□ 明心寶鑑 □

成家之兒는 惜糞如金 하고 敗家之兒는 用金如糞 이니라

〈집을 이룰 아이는 똥 아끼기를 금과 같이 하고, 집을 망칠 아이는 돈 쓰기를 똥과 같이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장차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기미가 엿보인다는 뜻이다.

장차 장성하여 집안을 크게 번성시킬 아이는 똥이나 오줌을 돈 아끼듯 하고, 집안을 망쳐 놓을 아이는 돈 쓰기를 똥이나 오줌처럼 헤프게 쓴다는 말이다. 과거에

는 금비가 없어, 곡식에 똥이나 오줌을 주어 길렀다.

아무리 부자라도 헤프게 낭비를 하면 집안 형세가 기울기 마련이고, 가난한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가면 부유해지게 마련이다. 낭비나 절약이나 하나의 습관이다.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길러 집안이 부유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